

“자살률 최저도시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2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1980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OECD 평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8.4명, 2004년 24~25명에 이어 세계 금융위기 사태 이후인 2009년 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09년 사업 시작 전 우리 노원구는 한 해 18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이는 이틀에 한 명이 자살하는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자살은 정신질환, 심리적 요인 등 개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앞서 통계가 말해주듯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미비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살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에도 자살예방 방법은 2011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어 2012년 3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차원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구는 2010년 10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자살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보건소에 생명존중팀을, 노원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팀을 신설하고,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 내 응급기관과 협력하여 자살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월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1년 1월에는 MOU 기관장, 종교단체 지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생명존중위원회’를 발족하여 사업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자문회의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SH공사 MOU 체결〉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MOU기관 생활밀착 생명지킴이 교육〉

또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여 2013~15년 간 81,039명을 조사한 결과 8,279명의 위험군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자살위험군에게 유선·방문 상담 등 정서지원 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자인 이웃사랑봉사단(생명지킴이)을 1,971명 양성하였고, 자살위험군 독거어르신 중 연계희망자 2,312명에 대해 549명이 연계되어 정서지원 및 생활실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노원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상담 및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의료적 서비스 외에도 복지자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위험군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구민의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해 복지관관계자, 통장, 공무원,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사랑 뱃지와 자살예방 동영상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종교단체 음악회 개최 시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하여 구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젝트 운영〉



〈기독교 생명존중 음악회〉



〈천주교 생명존중 음악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 자살로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수는 13,836명이고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할 경우 자살자의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까지 많은 주변인들이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13,836명이고, 자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자살자 주변 대략 1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간접 경험한다고 예상할 경우, 자살자 이외에 대략 124,524명 이상이 자살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복잡한 사회환경과 경쟁 분위기 속에 살고 있고 그에 따라 자살의 원인도 정신질환, 사회경제적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살률은 우리 사회·문화·경제적 요인 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줄여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살률의 감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살률을 두고만 볼 수는 없기에 자살예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구는 자살예방 TFT를 중심으로 생명존중 사업을